

호레이스 G. 언더우드의 한국농업진흥론

한규무(광주대 교수, 한국사)

H. G. 언더우드는 너무나도 유명한 개신교 선교사이다. 그의 생애와 활동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가 한국의 농업진흥을 위해 애썼던 점은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몇몇 기록을 참고하면 그가 이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 강연에서는 그가 많은 관심을 쏟았던 한국농업진흥론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한국농촌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는 다음 기록들이 참고된다.

“토지의 비옥도/ 일본의 비옥하고 푸르른 언덕을 보고 온 사람이 한국에 처음으로 밭을 들어 농게 되면, 산이 황량하고 험박하고 있음을 보고 놀란다. ... 이에 비해 북향하고 있는 육지에 붙은 땅은 비옥하고 경작이 잘 되어 있고 나무가 무성함을 볼 수 있다. 개간할 수 있는 땅 전부가 경작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수백만명의 한국인을 먹여 살리기 위한 충분한 곡식이 이 곳에서 생산되고, 상당한 양의 잉여물이 수출되고 있다. ... 농작/ 목축과 농업의 비용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문제, 비료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문제, 또 농작물의 농작을 정당히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인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토양은 훌륭한 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 농기구를 보면 한국은 이웃나라보다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다. ... 야채의 종류도 풍부하나 불품이 없고 맛이 없다. ... 과일로 말하면 한국은 상당히 풍부하게 생산된다. 그러나 과수를 덮치는 각종 기생충을 근절시키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과일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어 아직 익지도 않은 것을 거의 따버리고 만다.”¹⁾

즉 한국의 토지는 비옥하고 수확도 충분하지만 농업과 목축의 비율, 비료생산과 운작, 방충 등에 대한 지식이 한국인에게에는 부족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²⁾ 이같은 인식이 정확한 것이었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한국농촌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염려를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사실 언더우드는 농업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다. 그는 농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도 갖고 있었으니,

“... 그(주: 펜윅)의 샐러리는 높이가 26인치, 주름이 7인치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더우드 박사에게 알렸는데, 그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먹어온 이 지방에서 가장 큰 샐러리를 재배했다.”³⁾

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직접 채소를 길러 동료 선교사들과 나누어 먹을 정도였다.⁴⁾

그러나 이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농업활동’이라 부를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여하튼 농업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신문》⁵⁾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리스도신문》은 장로회 계통

1) H.G Underwood, 《The Call of Korea》, 1908: 이광린 역, 《한국개신교수용사》(일조각, 1989), pp.9~17.
2) 이같은 인식은 한국농촌에 대한 몇몇 서양인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는 언더우드만의 독특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서양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3) F. Ohlinger, “Fruit in Korea”, *Korean Repository* 1898. 2, p.77.
4) 주 3)에서 보았듯이, 이처럼 직접 채소나 과일을 직접 길러 먹었던 선교사는 몇몇 더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언더우드의 이같은 지식과 경험이 언제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에 대한 기록을 아직 찾아지지 않는다.
5) 《그리스도신문》은 1897년 4월 창간된 장로교의 주간신문으로서, 언더우드가 발행 겸 편집을, 빈턴(C.C

의 신문이면서도 농업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점은 《독립신문》에 실린 《그리스도신문》 관련 기사나 광고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즉, 《독립신문》 1897년 4월 1일자 기사를 보면, “미국 교수 윈더우드씨와 의원 빈튼씨가 새로 신문을 시작하였는데 이 신문은 일주간에 한번씩 나는 신문이라 일흠은 그리스도신문인데 농업과 학문과 내외통신과 각색 재미있는 말이 만히 있더라”라 나와 있고, 또 다음과 같은 광고도 실렸다.

“새로 내는 신문이라. 그리스도신문은 농수업과 외방통신과 외국통신과 판보와 잡보와 각부통신과 사람의게 유익한 것을 다 이 신문에 올닐 터이니 사다보기를 바라노라.”

또 이듬해인 1898년 3월 17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광고는 다음과 같다.

“이 신문은 농업과 공장의 편리한 것과 외국통신과 전보와 잡보와 판보와 각항물가를 기재한 것이 매우 유익하니 경향간 사보시기를 볼으노라.”

이처럼 윈더우드가 발행 겸 편집을 맡은 《그리스도신문》은, 기독교계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던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관심은 「농리편설」이라는 난을 두고 각종 서양농업을 소개함으로써 보다 구체화 되었다.

윈더우드가 이 난을 둔 목적은 《그리스도신문》 1897년 4월 8일자 사설에서

“미국공사 실씨가 농사 리치를 만히 아는 고로 대강 말하였거니와 이후 신문에에 농사리치를 여러번 기록할 터이니 이 법을 자세히 보고 이 리치대로 농사를 하면 힘도 적게 들고 물력도 적게 들거시니 의사있는 사람은 헛되이 듯지 말고 이대로 하면 내 몸도 위하고 나라도 위하는 법이니 아모쪼록 힘써 하여 부강한 나라히 되어 타국에 라고 견모를 맞지 말기를 바라노라.”

라고 밝혔듯이, 이에 따라 농사를 지어 인력과 물력을 아낌으로써 개인과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나름대로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골라 실었는데⁶⁾ 그 대부분은 서양농법이었다.⁷⁾ 연재된 「농리편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신문》 「농리편설」의 내용 (1897~1898, 1901)⁸⁾

Vinton, 1856~1936)이 주간 겸 사무를 맡았다.

6) “이 신문 보시는 농가들에서도 이것치 좋은 법으로 룻축 기르는 것을 자세히 시험하여 보시면 자미도 있고 전국에 업는 법이라 아모쪼록 이 신문에 기재한 농리가 테일 긴한 거시오니 우리 대한셔도 태서 각국 형편을 보아 무론 무어시던지 리할일은 힘써 하기 바라오(《그리스도신문》 1896년 6월 30일자 「농리편설」)”

7) “... 이 농리편설에 기재하는 것은 외국 농법이라고 허수히 보고 등한이 바려둘 거시 아니라 대한 전국 인민들도 이 신문에 기재한 법대로 시험하여 볼진대 편함과 리됨을 가히 알지니 대한 농가에서도 차차 이 법을 조차 행하면 부요하게 되것지로 힘써 권하노니 이거를 시험하여 보기를 바라노라(《그리스도신문》 1899년 5월 19일자 「농리편설」)”

8) 이 난이 처음부터 연재되었는가는 1897년 4월 1일자 창간호가 전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존하는 것으로는 제2호인 동년 4월 8일자부터이다. 그리고 1901년까지 그 난이 계속되는 것으로 미루어, 아직 찾아지지 않은 1900년의 《그리스도신문》에서도 이 난은 연재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 표에 실린 것 외에는 약 50여편의 「농리편설」이 더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1897>

04.08 밭출 가는 론

05.07 외양간 짓는 법/ 파 심으는 법

<1898>

01.06 농부의 만드는 거름 법/ 꽃회 경락론/ 별 기계 말

01.13 류리로 덮는 밭/ 오리 기르는 법/ 옥수수 심으는 법

01.20 닭의 룬이라 하는 별이라 하는 병론/ 해바라기론

01.27 농학신법/ 씨를 심으는 기계론/ 아스파라 가스나물

02.03 살시피 기르는 법/ 화초 전종하는법

02.10 나물에 거름하는 론

02.17 사일로 만드는 법

03.24 휴머시라 하는 흙론/ 밀갓치 되는 감자론/ 버섯론

03.03 파사국 대존론/ 배초론/ 캐롯시라 하는 무우론/ 외국 돌미나리론

03.10 굵고 큰 나모에 접하는 법/ 평을 기르는 거시 농사에 유익한 론/ 유통화라 하는 꽃론

03.17 농사의 유리한 론

03.24 복숭아 닙사귀 말니는 병/ 닭의 물것론/ 오래 뒤쉬라 하는 무우론

03.31 호박론/ 외국 미나리 기르는 론/ 말론/ 참외론/ 메스 큐시라하는 풀론/ 퍼시넵이라 하는 무우론

04.07 오리 기르는 법

04.14 곡식의 시루죽는 병

04.21 밭가는 법/ 딱정버리지론

04.28 둔겹이론/ 닭의 똥이 거름하기 좋은이라/ 데일 유익하고 돈 적게 드는 증승론

05.05 말을 잘 먹이는 론/ 병아리의 콧병론

05.12 여러 가지 물것을 죽이는 법/ 밀밭 가는 론

05.26 오리치는 론

06.02 암소의 열병론/ 괴괴한 슈목론

06.09 과목 가지를 치는 리약이/ 담배 버러지 죽이는 론

06.16 소를 먹이고 짓슬짜는 론/ 도아지가 제 삭기를 먹는 론

06.23 닭의 알 사철 낫게 하는 론/ 도아지의 비루먹는 병/ 닭을 먹이는 법

06.30 알을 잘 낫는 닭/ 닭이 오리색기를 잘 보호하는 론

07.14 닭의 깃 가는 론/ 빠로 거듬하는 론/ 양의 나히 얼마 된거슬 아는 론/ 수레박회테론

07.21 과목똥은 버러지 죽이는 론/ 닭의 피를 천천히 먹게 하는 론/ 수레박회테론

07.28 납작한 콩론/ 모래로 닭을 먹이는 론

08.04 말 편자 신기는 론/ 여러 가지 증승의 살노 거름하는 법

08.11 닭의 물것과 춘충과 회와 각생 버러지를 죽이는 론/ 밀에 감복이 업시 하는 론/ 말을 술질하는 론

08.18 닭의 병론/ 빠와 숫차로 닭을 먹이는 론/ 위스타리아 나모론/ 석탄재로 거름하는 법

08.25 도아지 색기의 설사병/ 무우에 거름하는 법/ 닭의 알을 골지안케 하는 법

09.01 소의 명울병론/ 초목의 생리학/ 파를 닭에게 먹이는 론

09.08 도아지의 콧란론/ 닭의 니론/ 옥수수대가 쓸 대 잇다

09.15 초목의 구슬먹는 버러지론/ 닭의 설사병 곳치는 약

09.22 도아지 먹이는 론/ 소의 젖에 버러지 잇는 론

09.29 복숭아나모 심으는 법/ 곡식가리 찢는 법

10.06 밭출 항상 매는 론/ 도아지에게 콩 먹이는 론/ 도로를 슈축하는 론

10.13 버러지는 죽이는 론/ 닭이 알을 잘 낫게 하는 론/ 좋은 도아지기를 만드는법

- 10.20 밋헤 그늘지게 하는 론/ 뉘에치는 론
- 10.27 감자 각구는 론/ 알을 상치 안케 하는 법/ 내암새 나는 콜노버론
- 11.17 휴머쓰론/ 배초 썩는 병
- 11.24 배초 썩는 병/ 콤프레이폴론
- 12.01 소콩의 유익함이라/ 담배 기르는 론/ 소의 젖병론/ 진디물론/ 병아리 기르는 론
- 12.15 과목에 흑나는 병론/ 과목 리종하는 법/ 삼 심으는 론/ 소금이 초목을 잘기르는 론/ 소금이 초목을 잘 기르는 론
- 12.22 일년감 검고 썩는 병/ 각쇠 나물 기르는 법
- 12.29 각쇠 나물 기르는 론/ 알을 상치 아니케 하는 법/ 호박 기르는 론/ 밀 가는 론

<1901>

- 01.03 클노바가 밀과 귀리를 잘되게 하는 론/ 회가 농사에 유익한 론/ 옥수수 빨히 먹는 버리지론/ 돌겨자론
- 01.10 각색 집히 농가에 유익한 론/우역론/ 닭이 알을 잘낳게 하는 론
- 01.17 농부가 급히 드를 말/ 과목에 병엽게 하는 법
- 01.24 과목에 병엽게 하는 법/ 농가에 데일 리익 잇는 증생론
- 01.30 과목 기르는 데 요긴법/ 능금 버리지 죽이는 론/ 감자으 소출론/ 소의 물 것 죽이는 법
- 02.07 재목을 버히는 론/ 우마의 습종 곳치는 론/ 말의 눈병론
- 02.20 가지 심으는 론/ 벌을 치기에 요긴한 것/ 과목을 잘자라게 하는 론
- 02.28 마구와 외양을 단단히 하는 법/ 습기가 업스면 농사할 수 업는 론
- 03.07 습기가 업스면 농사할 수 업는 론/ 닭오리의 병을 곳치는 론
- 03.14 초목에 진디를 업시 하는 론/ 닭의 전염병 예방하는 법
- 03.28 도야지의 콧병/ 닭과 오리를 잘 먹이는 법/ 칠면조론
- 04.04 큰 농장의 허비하는 것/ 약으로 풀을 죽이는 론/ 도야지의 병 곳치는 법
- 04.11 말의 상쳐 곳치는 법/ 소의 벗병 고치는 법/ 곡식 단을 잘마니는 법
- 04.25 리이가 감자를 잘되게 하는 론/ 목화씨로 거름하는 론

이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괄호 안은 항목수), 축산(58)/ 채소(22)/ 과수(13)/ 원예(13)/ 잡곡 및 감자(11)/ 병충(11)/ 거름(9)/ 경작법(4)/ 담배(2)/ 양봉(1)/ 양잠(1)/ 기타(16) 등이며, 모두 166 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벼농사에 대한 항목은 별로 없고, 축산과 야채 및 과수 지배, 방충 등에 관한 항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그의 한국농촌 인식, 즉 한국의 토지는 비옥하고 수확도 충분하지만 농업과 목축의 비율, 비료생산과 운작, 방충 등에 대한 지식이 한국인에게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특히 축산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물론 이는 서양의 가축에 대한 내용을 실은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한국의 가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는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서양가축의 도입이나 낙농과 같은 것을 권유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가축의 성장과 사료, 방역등에 있었다. 당시 선구적인 농서라는 안중수의 《농정신편》(1886)과 정병하의 《농정촬요》(1886)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비하면⁹⁾, 당시 한국에 있어 이같은 내용은 제법 자세하고도 선구적인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언더우드는 《그리스도신문》의 「농리편설」에서 뿐만 아니라 「론설」을 통해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 내용을 대략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그는 농업학교의 설립을 주장했다. 즉 1898년 6월 9일 「론설」에서 그는

9) 두 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이춘령, 《한국농학사》(민음사, 1989), pp.182~194를, 《농정신편》에 관한 내용은 이광린, 「안중수와 《농정신편》」, 《한국개회사연구》(일조각, 1985)를 참조.

“... 지금 미국서 농학원을 만히 세우고 힘쓰는 거슬 볼진대 엇지 나라헤 크게 유익이 아니 되리요 우리 대한 사람들도 관민간에 미국에서 여러해 잇다가 온 사람들이 있스니 우리 대한에도 농학원을 설시하엿시면 농민에게 만 우조할 뿐 아니라 첫재 나라헤 큰 유익이 될거슬 엇지 생각지 아니 아니하나뇨 이는 다름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인민을 사랑치 아니하며 아직 자그들의 의식이 족한것만 다행이 력이고 우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업습이니 사람마다 이러케 생각들을 할진대 어느때에나 이 나리히 부강하여 보리오 우리 생각에는 정부에서 속히 농학원을 설시하여 인민을 가라치며 학교를 늘히여 경향인민으로 일제히 힘슬게 하며 우리나라히 차차로 부강하여질줄을 아오니 등한이 돌보시지 말으시오.”

라고 하여, 미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농학원, 즉 농업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그는 구황작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았다.

“우리가 작년의 년사를 말할진대 년사가 좀 부족하기는 하나 큰 흉년이라 할 수가 업는지라 이러한 조고마한 흉년에 곡가가 대단히 고등하며 인민이 만히 아표디경을 당하는 거슨 ... 우리 대한이 본래 벼는 숭상하나 밀은 숭상치 아니하는 고로 비가 부족하게 오는 해에는 번번히 흉년을 당하는 거시오 ”¹⁰⁾

“... 농민들도 이후로는 물업는 건답에 벼만 힘써 위주할 거시 아니라 타국과 갓치 물업는 따흔 다 밭출 만드러 밀과 보리를 힘써 하고 물만흔 따흔 벼를 심으면 큰 흉년을 당치 아니할 거슬 리치를 어기고 물업는 따해 물이라야 되는 곡식만 위주하라 하는 거슬 보매 내 마음이 엇지 답답한지 아지 못하여 두어말로 모든 신문 보시는 형데의게 권하노니 명년브터는 물만흔 따해는 슈곡을 심으로 물업는 따해는 한국을 심어 슈한 량재중에 한가지가 잇슬지라도 한가지 곡식은 온전히 엇게 시험하여 보시기를 바라고 이갓치 두어말노 권면하오니 허수히 보지 말고 횡행하여 보시오.”¹¹⁾

등의 기사에서 알수 있듯이, 벼말고도 밀과 같은 구황작물을 많이 심어 흉년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

언더우드는 서양농기구의 소개에도 열심이였다. 다음 기록들을 보면 그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헤 여러 고을이 몇천석 직이식 묵은 따히 만히 잇나니 외국 기계를 사서 그 따홀 다 폐지하고 개간하면 우리 대한에 새로히 더 나는 곡식이 몇만석이 될지라.”¹²⁾

“미국에서 공예(장인 공 제조 예) 학문을 특별히 연구치 아니하되 오직 농사에만 자세히 연구하여 맛갈고 씨 심으는 기계는 미국을 데일노 녀이는 고로 각국서 다 기 기계를 채용하는데 지금 농가에 쓰는 씨심고 곡식거두는 기계가 데일 편리함으로 매년 곡식을 거두고 베힐 때에 이백만명 인력을 던다더라.”¹³⁾

즉 그는 우수한 미국의 농기구를 들여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데 쓰면 농업생산이 크게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이같은 소개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농기구를 보급하는 데도 앞장섰다.¹⁴⁾ 위와 같은 논설이 실리기 전인 1898년 1월 6일자 《그리스도신문》 광고를 살펴보자.

10) 《그리스도신문》 1898년 6월 17일자 「론설」.

11) 《그리스도신문》 1898년 9월 15일자 「흉년의 사망을 면할 론」.

12) 《그리스도신문》 1989년 6월 17일자 「론설」.

13) 《그리스도신문》 1906년 6월 20일자 「농사기계」.

14) 이 때는 그 서양작물의 종자들도 같이 들여왔던 것 같으니, “미국 좋은 곡식 종자/그리스도신문 보시는 이는 명년 일년치 신문갑을 미리 선급하여 보내시면 명년 봄에 미국 농사에 심으는 여러 가지 좋은 종자를 그저 줄터히니 명년 신문가를 선급하시오(《그리스도신문》 1898년 10월 20일자 「광고」).”라는 광고를 통해서도

“뿔슬 장기화사 광고/ 이 장기는 미국 뿔슬이라 하는 사람이 만든 기계니 서양 제국에도 매우 유명한 장기라 밧갈기를 잡히 하고 힘이 들지 아니하며 쉽고 편리하기가 한량업스니 우리 조선에도 농사를 힘쓰는 사람들은 쉽고 편리한 거슬 취하여 사서 쓰라 하거든 그리스 도신문국 와서 리허를 속속히 알아보시오.”

이 기록에 보이듯이 그리스도신문사에서 ‘뿔슬’이라는 상표의 밧가는 기계를 팔기도 했다. 사실 이 기계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수입한 사람도 바로 언더우드 자신이었다.¹⁵⁾ 이외에 그는 씨뿌리는 기계, 풀베는 기계 등도 들여왔다.¹⁶⁾

그러나 판매실적은 신통치 않았던 것 같다.¹⁷⁾ 전통적 방법에 익숙해진 한국 농민들에게 서양의 낫선 기계로 농사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과연 그것을 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겠는가, 또한 그것들이 한국의 지형 및 토양에 적합한 것이었겠느냐 등의 문제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르자 언더우드는 서양농기구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기사를 《그리스도신문》에 계속 실었다.¹⁸⁾ 그러나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 때 문에 그는 ‘장사꾼 선교사’로 몰려 곤욕을 치루어야 했다.¹⁹⁾ 즉 그는 서양농기구의 보급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 선교사의 농기구의 수입판매는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선교사 출신으로 그 역시 일찍부터 이재에 관심이 많았던 미국 총영사 알렌은 다음과 같이 선교사들의 상행위를 비난하기도 했다.

“선교사들 사이에 일부 물품의 판권을 얻는 개탄할 만한 관행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무역상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생계를 보장받고 비용을 들일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상인들보나 싸게 물건을 팔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많은 불화를 낳고 있으며, 선교사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는 이런 행위가 선교사업에 해를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²⁰⁾

집작할 수 있다.

15) “우리가 대한 전국의 잇는 농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미국에 기별하여 농사하는 기계를 내여오는데 이 기계는 밧고랑에 씨를 뿌리는 것과 씨뿌린 후에는 엇더하게 곡식이 나게 하기를 더욱 편리하게 기계와 잡풀을 업시 하는 기계를 내여왔는데 가령 대한에서 근본 농사하는 연장으로 말할랑이면 대한서는 한달 동안에 두 사람이 힘써 하던 거슬 이 기계는 한 사람이 반시 동안이 되면 능히 하나니 엇지 편리가 되지 아니하리오 힘도 아니 들고도 농사하는데 더욱 유익하고 곡식이 생장하는데도 더욱 좋은고로 특별히 농기를 내여온 거시라(《그리스도신문》 1898월 1월 6일자 「별기계 말」).”

16) 위와 같음.

17) 그것은 언더우드가 《그리스도신문》 1898년 1월 27일자 「논설」에서 한국인들에게 사뭇 원망조로 수입 농기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다.

18) 《그리스도신문》 1898년 7월 28일자 「농리편설」 참조.

19) 당시 언더우드는 농기구 뿐만 아니라 석유, 석탄 등도 들여왔으므로, 일반수입상이나 외교관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다음 기록이 참고된다. “무엇보다도 좀 나은 편이지만, 역시 골칫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은 장사꾼 선교사들이었다. ... 원산의 한 선교사는 장사를 위한 과수원을 하나 경영하고 있었으며(주: 펜윅을 말함), ... 빈튼(주: 그는 그리스도신문사의 사무를 맡고 있었음)은 재봉틀 100대를 들여왔고 언더우드는 석유, 석탄, 농기구 등을 수입했다.(F.A. Harrington, *God, Mammon and Japanese*, 1944: 이광린 역, 《개화기의 한미관계》, 일조각, 1985, pp.112~113).”

20) The Report of the Trade of Korea(1898); 《독립신문》(영문판) 1898년 8월 16일자; 류대형,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p.220.

언더우드도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쳤다.

“선교사들의 일부 물품에 대한 관권을 차지하여 우리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농기계와 기구를 수입해 들여온 것은 나밖에 없다. 나는 여러번 판매대리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항상 거절해왔고, 요청만 한다면 그런 일을 해 줄 무역회사들이 이곳에 있다고 분명히 대답해왔다. 나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도 대리인 역할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광범위하게 한국인들과 사귀고 있다. 그들이 조악한 연장 등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외국연장이나 기구의 뛰어난 질과 유용성을 서슴없이 말해주곤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나는 얼마간을 수입해왔는데, 일부는 한국인들에게 원가로 보급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그들에게 그것을 단지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미국에 있는 회사에 편지를 할 때마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며 그런 일을 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라고 항상 밝혔다. ... 내가 행한 일들이 한국인들에게 이익이 되고자 목적인 것이기에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상인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²¹⁾

이상에서 대략 언더우드의 농업진흥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에게는 농기구와 종자의 도입과 같은 실제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리스도신문》을 통한 서양농법의 소개라는 이론적인 면이 보다 강했던 것 같다. 어찌보면 이것이 그의 농업진흥론의 한계라 할 수도 있으나, 애당초 전문 농학자가 아닌 그에게 더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그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복음선교를 통해 ‘죄악’으로부터, 교육선교를 통해 ‘무지’로부터, 의료선교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한국인을 해방시키려 했던 그는 농업진흥을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까지 꿈꾸고 있었다. 그는 결코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꽃”만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선교사가 아니었다.

21) 《독립신문》(영문판) 1898년 8월 23일자; 류대영, 《초기 미국선교사 연구》, p.223.